

# 미술관·박물관은 지금 공부중

미술관과 박물관, 비엔날레 재단이 때 아닌 '공부 삼매경'에 빠졌다. 최근 난해한 현대미술을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야 하는 큐레이터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이들 문화기관의 관람객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박지택·이하 시립미술관)은 지난 4일 미술전문가들을 초청 현재 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봄날은 간다' 전(3월20~5월14일)을 직원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뮤지엄 토크'를 가졌다.

'봄날은 간다를 말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뮤지엄 토크에서는 부산시립미술관 김준기 큐레이터, 박용주·이명원 미술평론가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미술관에서는 학예연구실, 전시운영과, 시설관리과, 총무과 등 전 직원 45명이 참여해 전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주고 받았다. '봄날은 간다'를 기획한 변길현 학예연구사(시립미술관), 참여작가인 하봉호, 윤익, 정운학, 이이남씨 등도 자리를 함께 해 작품 설명을 도왔다. 이들은 ▲중년의 정체성을 다룬 '봄날은 간다' 전의 서사성 ▲디스플레이 특성 ▲작품 분석 ▲전시미학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시립미술관은 또 지난 3월부터 넷째 주 월요일을 '미술 체험하는 날'로 정하고, 자체 기획한 전시회를 전 직원이 개막 전에 미리 관람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시립미술관은 올 하반기 전국의 국립미술관 학예연구사들을 초청해 현대 미술의 흐름 등을 조망하는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도 지난달 전시부, 디자인 전시부, 관리부, 홍보사업부



최근 광주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 재단이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광주시립미술관 주최로 열린 '뮤지엄 토크·봄날은 간다' 모습.

## 시립미술관·광주비엔날레 재단·광주박물관 뮤지엄 토크·미술문화 현장 탐방·워크숍 등 '관람객 눈높이 맞추기' 다양한 직원 재교육

등의 직원 19명을 대상으로 '미술문화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 5일~11월9일) 개막을 6개월여 앞두고 국내 미술계 동향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활 쏘는 헤리클레스'로 유명한 조각가 에밀 앙트완 부르렐(1861~1929)의 작품을 전시 중인 서울시립미술관

과 파주 헤리어 예술 마을, 이음노 미술관, 리빙디자인페어 등 국내 유명 전시공간과 전시회를 둘러봤다.

최근 관람객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이하 광주박물관)도 양질의 전시해설 서비스를 위해 직원 교육에 적극 나섰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를

간 열린 '2008 국립박물관 교육 워크숍'에는 전국의 국립박물관 교육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해 교육 목적, 교육적 역할,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광주박물관은 내년 개관 30주년을 맞아 총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멀티미디어·시각 미디어 시설 확충 ▲유물 설명과 교육 기능 강화 ▲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광주시립미술관 박지택 관장은 "갈수록 작품 보는 안목이 높아지는 관람객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반 직원들도 미술과 전시회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더 좋은 전시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발표 응용이미지 79종도 확정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은 7월 제7회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 공식 포스터<(사진)>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포스터의 타이틀은 '연례보고'(Annual Report)이며, 지난 3월 발표된 EIP(Event Identity Program)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포스터에는 ▲길 위에서(On the Road) ▲제안(Position Papers) ▲끼워넣기(Insertions) 등의 전시 섹션을 소개됐다.

또 2007년부터 2008년 동안의 전

시 및 이벤트를 재조명하는 '연례보고'의 의미로 디자인에 넣은 숫자 '07' '08'은 검은색으로 표현, 포인트를 뒀다. 배경에는 소리치는 일 모양 이미지를 그늘코 모양의 작은 점으로 새겼다.

재단은 공식포스터와 함께 총 79종의 제7회 광주비엔날레를 알리는 응용이미지 개발을 완료했으며 입장권, 명함, 전시판, 현수막, 버스광고, 스티커, 머그잔 등 모든 홍보물을 삽입할 계획이다.

/오피니언기자 kroh@kwangju.co.kr

## 남도 의식 확산 展 자리아트 갤러리 8~14일



광주 자리아트 갤러리 는 8~14일까지 '남도 의식 확산' 전을 갖는다. 김종안, 박용환, 한태희, 설상호, 한부철, 조윤성, 강동권, 조현수, 오광섭씨 등 30~40대 작가 24명이 참여해 남도의 예술 흔적과 정신이 담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다. 안태영씨는 말벌, 삽, 우산, 꽃신 등 등장하는 신작 '꽃잎 사연'을 선보인다. 강명진씨는 '무등산 설경'을, 김광표씨는 '붉은 그네·맨드라마'를 통해 남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했다.

/오피니언기자 kroh@kwangju.co.kr

## 뉴스·정보 의존 신문 1위 시의적인 심층 기사 선호

### 한국신문협회 조사 결과

신문 독자는 시의적이고도 심층적인 기사를 선호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지방지 독자들은 정치, 사회 기사를 가장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문을 통해 주로 뉴스와 정보,

아이디어를 얻고 있으며 신문 열독 시간과 신문 구독기간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신문협회가 7일 제52회 신문의 날을 맞아 독자들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독자 프로파일 조사'에서 나왔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1주일에 3회 이상 신문을 읽는 만 18~64세의 12개 지역의 독자 3천375명을 대상으로 3월11일부터 1주일 간 월 평균방식으로 이뤄졌다.

◇ 시의성 있고 심층적인 기사 선호 독자는 시의적이고 심층적인 기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 계절을 맞아 국회의원 선거(정치) 기사에 대한 열독률이 45.3%로 가장 높았다. 지난 조사에서 정치 기사 열독률은 27.5%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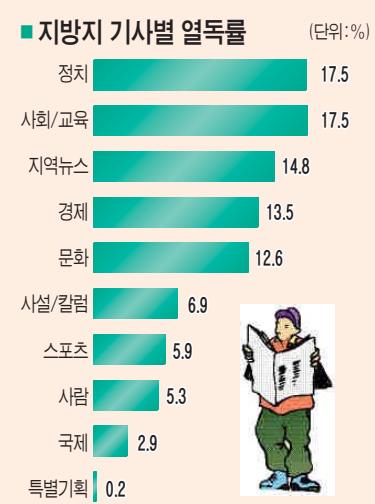
이어 심층보도인 특별기획이 41.8%, 사회·교육이 41.2%, 국제 37%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지와 지방지 독자는 정치기사를, 경제신문 독자는 경제 기사를 많이 읽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교육 순으로 독자들이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지는 경제 기사가 57.5%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정치, 사회·교육, 문화가 뒤를 이었다. 지방지는 정치가 가장 높았고, 이어 사회·교육과 지방 뉴스 순이었다.

◇ 신문 파워 여전히 건재  
다매체·다채널 시대에 독자는 뉴스·정보·아이디어를 얻는데 여전히 신문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의 강세가 두드러진 반면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미디어는 TV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상 돌아가는 정보'에 대한 의존율은 신문이 71%로 가장 높았으며 인터넷 68%, TV 59% 순이었다. 2006년엔 하루 약 40개 기사를 읽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에 2008년은 54개 기사를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 시즌을 맞아 지방지 독자는 26개



기사를 읽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7개로 급증했다.

◇ 최고의 광고·홍보매체는 신문  
신문, TV, 라디오, 인터넷, 잡지 등 5대 매체에 대한 광고 효과를 물은 결과, 독자는 '기업 경영자의 이념과 철학',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실적과 내용'을 가장 잘 전달하는 광고매체로 신문을 꼽았다.

신문을 읽는 요일은 월요일(83.9%), 금요일(79.7%), 수요일(79.6%), 토요일(78.6%), 목요일(77.2%), 토·일요일(55.7%) 차례였다.

신문을 주로 읽는 시간대는 오전 8~10시와 오후 7~9시였으며, 신문을 주로 읽는 장소로는 집과 직장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 광주시-놀이페 '신명' 갈등 해소

앞에서 진행했던 표현의 자유 행위 관련 시위를 종단하고 보조금도 반납키 했다.

'신명'은 지난해 11월 광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시 청사 청소용역직원 해고 문제를 디문 마당극을 공연하려 했으나 시가 '공연 내용이 신고된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하고 보조금 반납을 요구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강력 대응했었다.

/김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Happy Time 영화관 출판 기획전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발표 응용이미지 79종도 확정**

**남도 의식 확산 展**  
자리아트 갤러리 8~14일

**광주시-놀이페 '신명' 갈등 해소**